

"우리는 인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수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유)

제목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입찰공고 정정 요청에 대한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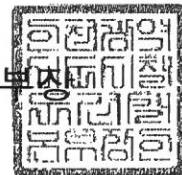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철도궤도 제57(2016.5.9.)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입찰공고 정정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본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연장(0.82Km)이 짧고 궤도분야 공사가 소규모로 궤도공사를 따로 분리발주 하는 것 보다는 토목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함을 회신합니다.

3. 아울러, 철도건설법 제18조 제2항 규정은 불임과 같이 강행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췌본 1부. 끝.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실무관

박동호

공사기획담당

유세종

공사시설1부 2016. 5. 11.

장 김정호

협조자

시행 공사시설1부-2736

(2016. 5. 11.)

접수

우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도시철도건설본부(8층) 공사 / <http://iurail.incheon.go.kr/>
시설1부

전화번호 032-451-2783 팩스번호 032-440-8788 / civil0622@korea.kr / 비공개(5)

인천을 흔들어 보자, 마음속의 인천을 깨우자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4월 5일, 조현룡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3. 6. 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3. 6. 20.)

상정 · 축조심사 · 수정가결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13. 6.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수정가결

- 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 철도건설사업의 분리발주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개정안은 철도건설공사 발주 시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전문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의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이는 철도 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분리발주 원칙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각 부분별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 형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민간공사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등을 이유로 거의 모든 공사가 통합 발주되고 있음.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통합발주가 원칙이나, 예외조항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하여 분리발주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

다만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서 분리발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철도건설법」 제18조제2항에서 건축·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즉, 고속철도건설사업의 건축·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는 타법(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의 규정과 같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성질 또는 기술관리 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체계는 공사 발주의 방식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성질 및 기술관리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발주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일부 개별법에서 분리 또는 통합 발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 공사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총 313건의 공사에서 16건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법과 개정안에서 공히 통합발주와 분리발주의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 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상은)

특례조항 중 소방 및 방재와 관련한 조항은 화재안전을 위해 일반철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철도건설 분리발주 의무 부분은 분리발주한 전문공사의 종류를 한정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 6.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각 부분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고, 고속철도 특례조항을 일반철도에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특례조항 중 소방 및 방재와 관련한 조항은 화재안전을 위해 일반철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철도건설 분리발주의 일부 부분은 분리발주할 전문공사의 종류를 한정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18조).

수정안 조분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전문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p>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심사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U3C0S4W0S5X1A0O1P8T4N0F4B2T6